

민주 순천시장 후보측 금품 수수 의혹...선거판 '혼돈'

중앙당 감찰...후보 유지 여부 곧 결정 손훈모 "캠프 관계자 일탈" 연관 부인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측의 금품 수수 의혹이 터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혼돈에 휩싸였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손 예비후보 측에 대해 당내 감찰에 착수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 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이미 제보를 입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음성파일에는 손 예비후보 측 인사에게 사업가가 '5개'라는 표현을 쓰며 뭔가를 전달하는 대화 내용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 예비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라며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 고통,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후 다른 언론은 별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아무리 준비해 갖고 와라", "만나기 전에 '손'(손훈모 후보를 지칭한 듯)도 정리를 해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는 등 녹취 내용을 활자로 전했다.

손 예비후보 캠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치밀한 '공작 시나리오'"라며 "법률 전문가와 현장 조사관이 포함

된 진실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찰을 거쳐 후보 자격을 유지 또는 박탈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을 박탈한다면 새로운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 경선 후보들이 대상이 될지,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할지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서는 손훈모·오하근·서동욱·허석 등 예비후보 4명이 경쟁해 손 후보와 오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손 예비후

보는 본경선에서 탈락한 2명 후보의 지지를 끌어모아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당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이나 잡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국힘 이정현 "광주, AI로 먹고사는 도시 전환"

대기업 투자 촉진...AI 산업 기반 구축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8일 "광주를 'AI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증특구 지정, 대기업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는 AI를 배우는 도시가 아니라 AI로 먹고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은 포화된 만큼 이제는 실험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도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는 AI 실증 특구 지정"이라며 "자율주행·드론·의료·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광주 전역을 테스트베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국가급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RE100 에너지를 패키지로 해결하고 AI 산업 전력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AI와 미래차 산업을 결합해 자율주행 도시와 완성차·부품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의료·행정 혁신 방안으로 "AI 의료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격진료·진단 AI를 전국 최초로 적용해야 한다"며 "민원·복지·안전 시스템을 AI로 전환해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전용 존을 조성해 규제·세제·입지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하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가 몰리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실적 목표는 대기업 유치"라며 "삼성엔 AI 반도체 테스트·패키징·응용 산업, SK는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사업, 현대차는 자율주행·미래차 실증 도시로 광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5월29-30일)를 1개월여 앞둔 28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사전투표소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출력 등 1차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진보 이종욱 "전남광주 '청년특별시' 만들겠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8일 청년 자산 보장과 주거·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날개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시의 청년은 특별해야 한다"며 "출발선이 평등한 청년 자산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8-19세 미래세대 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9세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다"며 "19세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 5천만원을 지



원하고 지역 대학 등록금 0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최소 면적 33㎡(10평) 이상의 청년주택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겠다"며 "10년 안심 보증제도로 모든 청년 부채 상환을 10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기아차 3공장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고 GGM 생산량을 확대해 기아 5만대와 함께 연간 80만대 미래차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자동차 생태계를 완성해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국가 농업AX플랫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안에 2천546억 규모 AI 농업 전진기지 금지사 "새로운 농업 생태계 모범 사례로"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농업AX(인공지능 전환)플랫폼'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지능형 영농 솔루션 플랫폼으로 혁신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함께 국내 농기계 선도기업인 ㈜대동을 필두로 LG CNS, 대영지에스, 아트팜영농법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과

순잡고 국비 439억원 등 총사업비 2천546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무안 해제면 일원에 인공지능 농업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AX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농업AX 3중 인프라(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예산 1천500억원이 이미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기술 개발부터 실증·확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됐다.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LG CNS는 AI-데이터 솔루션 플랫폼 구축과 IT 인프라를 담당한다.

대영지에스는 첨단 온실 및 인프라 시공을,

강진의 아트팜영농법인은 현장 영농 운영과 자물 재배 모델 실증을 맡아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AI가 최적의 영농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3세대 지능형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로봇 기반의 4세대 무인 자율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정립해 'K-AI 농업'의 수출 산업화를 이끌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소득을, 국가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K-농업 수출 확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2030년 안목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농업 생태계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OTAC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